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0.(화)

농촌진흥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 결정

- 11월 9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심의회 개최

- 병 발생 농가 대상 공적 방제 추진…감염 식물체 등 전량 폐기

- 폐기·소독 후 잔존 검사 거쳐 재정식 검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1월 9일 김상경 차장 주재로 열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심의회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관 및 담당자와 대학 식물바이러스 전문가,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생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 추진 △확진 재배 시설(하우스 동 단위) 식물체·생산물·배지 등 전량 폐기(밀봉 후 소각) 및 시설 내외부 소독 △식물·작업 도구·유통 상자 등 반출 금지 및 작업자 출입 통제 △잔존 검사를 통한 재정식 여부 결정 △방제비 및 재정식 비용 지원 등을 결정했다. 재정식 비용 등 세부 지원 기준은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식 가능 여부는 바이러스 잔존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사는 토경 재배 농가는 소독 완료 4주 후, 수경재배 농가는 2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단, 수경재배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재소독 1주 후 재검사해 최종 판단한다. 발생 농가는 3년간 추적 조사한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주로 토마토와 고추류(파프리카 포함)에서 발생하는 식물바이러스로 검역관리급 병해충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현

재(11.9. 기준) 충남·전북·경남 및 부산 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 39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과 밝은 얼룩무늬 발생, 잎이 바늘처럼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과실의 경우, 착색 불량과 표면 변형(갈색 반점, 주름, 균열 등) 등이 일어난다.

농작업 중 손이나 작업 도구, 의복 등의 접촉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감염된 모종이나 오염된 양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각 농가에서는 △건전 종자와 모종 사용 △작업 전후 손 및 작업 도구 소독 △작업 도구와 출하 상자 공동 사용 금지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작업 동선 구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해당 식물을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격리한 뒤,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신고해 검사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11월 10일 시도 농업기술원과 관계 기관에 공적 방제 방법을 알리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방제대책반을 설치해 공적 방제 추진과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19일까지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발생 농가 및 관련 육묘장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공적 방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가에서도 작업 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병진 (063-238-1040)
		담당자	연구관	경은선 (063-238-104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